

‘스포츠 속 과학’을 체험해 보요

국립대구과학관 ‘아유레디, 과학으로 보는 스포츠’ 공동특별전

국립대구과학관(관장 이난희)은 2024년 국립과학관법인 공동특별전 ‘아유레디?(Are You Ready?): 과학으로 보는 스포츠’를 9월 22일(일)까지 과학관 본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2024 파리 올림픽으로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국립대구과학관 공동특별전 ‘아유레디? 과학으로 보는 스포츠’는 스포츠를 통해 신체활동의 과학적 탐구와 스포츠 속에 숨은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구·부산·광주 등 3개의 국립법인과 과학관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주를 이루며 움직임의 비밀, 스포츠 속 과학, 생활과 스

포츠까지 3개 존* 37종의 전시물로 채워졌다.

* 1존 ‘움직임의 비밀’, 2존 ‘스포츠 속 과학’, 3존 ‘생활과 스포츠’

특히 이번 전시는 전자태그(NFC) 시스템을 적용해 관람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입장 시 나눠주는 팔찌형 전자태그로 체험전시물을 예약하기도 하고 체력 측정 시 근력이나 순발력 등 나의 정보값을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다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의) 053-670-6204

행복한 가족을 위한 ‘에코 라이프’ 대구달성도서관, 찾아가는 환경교육

(관장 정현호)은 오는 7월 25일(목)~26일(금)까지 이틀동안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환경교육 ‘행복한 가족을 위한 에코 라이프’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환경교육센터 주관

2024년 찾아가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7월 25일(목)에는 일상 속 제로웨이스트 실천법을 챗GPT와 함께 알아보는 ‘A.I와 함께 배우는 제로웨이스트 실천법’, ▲7월 26일(금)에는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식량 문제를 다루는 ‘그 많던 대구 사과 어디로 갔을까?’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주제별로 각각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독서문화실(☎231-2171)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달성도서관〉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맛나네 막창

달서구 달구벌대로332길 93
문의 ☎053-568-9289

“가성비 좋은, 집밥 먹으러 가자”



점심 한 그릇, 1만 원을 육박하는 고물가 시대에 정말 가성비 좋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고 싶다.

감삼동에 북개 도로에 있는 ‘맛나네 막창’

김남교 사장님은 대학로 앞 호프집 막걸릿집 각종 식당을 수십 년간 운영하셨다. 특히 2년 전까지 분리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맛나네 할매집’이라는 가게에서 식사류 각종 안주 등으로 가게를 운영하신 바가 있다.

막창집이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은 점심 특선 메뉴이다.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판매하는 점심은 7,000원이라는 가격에 매일 바뀌어 나오는 6~7가지의 반찬과 국. “이래도 남는 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식사를 가져다주시며 “우리 집은 밥은 무한이다”라며 배불리 먹고 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하신 ‘잔치국수’ (5,000원)는 신선한 재료들로 직접 내신 육수에다가 쫄깃하게 적당히 잘 삶은 국수를 매일 직접 버무리시



는 걸절이를 곁들여 한 입하면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난다. 그리고 더운 여름이라 ‘냉잔치국수’를 판매하는데, 따뜻한 국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온 잔치국수’도 만들어 주신다. 그외 ‘주꾸미 비빔밥’도 있는데, 사장님 특제 소스에 불맛을 곁들여 볶은 주꾸미에 콩나물 등 각종 채소를 곁들여 비벼 먹으면 잃어버린 입맛까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질 수 없는 메뉴가 있다. 예약해야 주문할 수 있는 ‘수육’이다. 원하는 시

간에 주문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막창’은 사장님의 수십 년간의 노하우와 전문가에게 전수 받으신 소스, 막창 삶는 방법까지 더해 막창 특유의 뽀얀색을 잡고 구수하고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매일 매일 점심 메뉴를 못 정해서 ‘뭐 먹지?’하지 마시고 ‘맛나네 막창’ 가서서 점심 특선 집밥 정식으로 든든한 하루를 채우는 건 어떨까?

이권수 객원기자